

순천시, 청년 문화생활 지원 ‘문화복지카드’ 접수

최대 25만원 지원...30일 마감
학원 수강·공연 관람·책 구입
기존 발급자 자동 충전 방식
“체감형 지원책 편성 노력할 것”

순천시가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에 나선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공연관람, 학

원수강, 도서구입 등 문화복지비를 1인당 연 최대 2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이면서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28세(1997~2006년생) 청년이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도 올해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지급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비

14만원을 제외한 차액 11만원만 지급한다.

신청은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6월 내 신청자는 적격여부를 확인해 8월 말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안내 문자를 받은 후 광주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기존 카드 발급자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자동 충전되고 올해 신규 선정자는 광주은행에서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전남 도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청년 문화복지 카드 지원사업이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정책이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이론차 합동 단속

전라남도 여수시가 오는 10월까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이론자동차(오토바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운행 중인 이론자동차로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

릴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배달 대행업체 등 이론차 운전자들은 저소음 운행과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18일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흥국체육관서 150개 기업 참여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성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 흥국체육관에서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내일(job)’을 찾는 기쁨, 함께하는 전남’을 주제로 150개 기업(현장채용 30개·간접채용 120개)이 참여해 현장에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채용관 △취업준비관 △직업정보관 △

창업관 등 4개관 60개 부스로 구성된다.

채용관에서는 현장 채용 면접과 구직·구인 상담이 이뤄지며 QR코드로 채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구인 게시대도 운영된다. 취업준비관과 직업정보관에서는 진로 탐색 검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업 상담 서비스, 전문가의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은퇴자 취업 연계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26억 부과

6월 선납 신청·납부 독려

전라남도 고흥군이 2025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만6267건, 26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집중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1년 분 세액이 일괄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6월 정기분 외에도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선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 직장인 납세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직 6월 선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위택스 접속이나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선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9일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를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어르신 대상 한의학 건강교실 운영

전라남도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가 어르신을 위한 한의학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노후 지원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9일 중마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과 연계한 ‘행복한 노년 한의학 건강교실’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중마통합보건지소는 이날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사와 함께 치아 관리, 금연 관련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 ‘행복한 노년 한의학 건강교실’에서는 민경준 공공보건 한의사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변비 등 노년기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을 생활 실천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석자 개별 증상에 따라 이침(T침) 시술과 한방 파스도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향출생보건과장은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8월 말까지 집중호우 대비

전라남도 광양시가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양시는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대기배출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

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의 무단 방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여부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여부 등이다.

광양시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7월부터는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 등 수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진 광양시환경과장은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적극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